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 사랑하고 좌절해도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

‘유열의 음악앨범’ 김고은

‘도깨비’ 이후 자존감 무너져
6개월 간 혼자만의 시간
‘은교’ 정지우 감독에 보답하고자

‘첫사랑’, ‘청춘’이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배우 김고은(28)이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자신과 꼭 맞는 역할을 연기했다.

10년 넘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인연의 끈을 이어온 두 남녀의 사연을 그리는 이 영화에서 김고은은 사랑하고 동시에 좌절하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청춘 미수를 연기한다.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김고은은 “영화 자체는 일상이 가까운, 흘러가는 이야기이고, 두드러지는 큰 사건도 없는데 그 안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미수와 현우(정해인)의 연애 감정도 공감됐고, 극 중에서 미수가 ‘내가 못나면 다 후져 보여’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제가 느껴왔던 감정이기도 해요. 나만 못한 것이 억울하고 나쁘게 보고 싶은 그런 심술이죠. 누구나 그런 기분은 느껴봤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미수가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계속 엇갈리는 두 남녀에 대해서는 “답답했는데, 또 깊게 생각하면 그들의 그때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게 됐다”고 웃었다.

영화는 90년대를 재현해내며 복고 감성을 자극한다. 1991년생인 김고은은 “그 시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 시대에도 감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주는 감정과 고민은 일맥상통한다고요. 다만 그 시대에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느낌이 있었죠.”

그는 “손편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김동률, 이적, 루시드플, 널 음약을 좋아했다”고 덧붙였다.

데뷔작 ‘은교’의 감독이기도 한 정지우 감독과 이번 영화에서 재회했다. 그만큼 김고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다.

“‘은교’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감독님께 모든 것을 다 기대고 저는 연기만 신경 썼을 정도였죠. 이후 6년 동안 연기 활동하면서 저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고, 이번에는 감독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죠. 감독님은 디렉션을 주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대신 배우를 말하는 편이어서 ‘은교’ 때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이번에는(디렉션을) 이해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어요.”

그는 “감독님이 처음 ‘유열의 음악앨범’ 초고를 주면서 ‘김고은의 이 시기, 이 기운을 담고 싶다고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뷔 이후 영화 ‘차이나타운’ (2015), ‘협녀, 칼의 기억’ (2015), ‘계춘할망’ (2016), ‘변산’ (2018)과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2016), ‘도깨비’ (2016~2017) 등에서 활약한 그는 “미수처럼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도깨비’ 이후였는데, 제가 작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존감이 무너졌죠.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6개월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고, 너무 나를 몰아줬나 싶어서 위로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극복해나갔어요.”

김고은은 김은숙 작가의 새 드라마 ‘더 킹: 영원의 군주’와 영화 ‘영웅’을 준비 중이다. ‘영웅’은 윤재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뮤지컬 ‘영웅’을 영화화하는 작품이다.

“제 분량이 크지는 않은데, 솔로곡이 세 곡이나 되고 난도가 정말 높아요. 보컬 훈련도 하고 녹음도 하는데 노래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노래방에서는 잘 부르는데... 득음할 것 같아요. (웃음)”



“첫 할리우드 진출, 어깨가 무거워요”

영화 ‘안녕 베일리’ 헨리 반려견과 인간 우정 담아

“첫 할리우드 진출인데, 동양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아서 어깨가 무거웠어요.” 할리우드 영화 ‘안녕 베일리’에 출연한 가수 헨리(30·사진)가 할리우드에 진출한 소감을 밝혔다.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안녕 베일리’ 기자회견회에서 헨리는 “좋은 기회라 처음에는 놀랐다”며 “할리우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동양인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녕 베일리’는 씨제이를 지키기 위해 세 번 환생한 개 베일리의 이야기를 다룬다. 계속 환생하며 씨제이의 곁을 지키는 개 베일리와 그와 함께하는 싱어송라이터 씨제이의 성장기가 따뜻하게 그려진다.

헨리는 “강아지들이 주인공인, 가족적이면서 사랑스러운 영화”라며 “보고 나면 따뜻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캐서린 프레스콧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인물”이라고 씨제이를 소개하며 “전에는 기타 치면서 노래해 본 적이 없어서 연습을 많이 했다. 헨리가 기타 연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헨리는 “저는 활발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트렌트는 얌전하다. 그래서 항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진정해. 집중. 모범생’이라고 되뇌면서 클래식 배우던 시절을 생각했다”고 했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두 사람은 기자회견 내내 웃속말을 하기도 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헨리는 “어제 캐서린을 흥대에 데려갔는데, 다들 알아봐서 놀랐다. ‘나 혼자 산다’ 덕분인 것 같다”며 “캐서린은 좋은 여자 사람 친구다”고 웃었다.



헨리가 기타 연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헨리는 “저는 활발하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지만 트렌트는 얌전하다. 그래서 항상 촬영 들어가기 전에 ‘진정해. 집중. 모범생’이라고 되뇌면서 클래식 배우던 시절을 생각했다”고 했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두 사람은 기자회견 내내 웃속말을 하기도 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헨리는 “어제 캐서린을 흥대에 데려갔는데, 다들 알아봐서 놀랐다. ‘나 혼자 산다’ 덕분인 것 같다”며 “캐서린은 좋은 여자 사람 친구다”고 웃었다.

조여정 ‘99억의 여자’로 안방극장 복귀

KBS 2 새 수목드라마 출연

배우 조여정이 ‘99억의 여자’로 안방극장 시청자들과 만난다.

조여정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26일 조여정이 KBS 2TV 새 수목드라마 ‘99억의 여자’ 정서연 역에 캐스팅됐다고 밝혔다.

‘99억의 여자’는 우연히 현찰 99억원을 움켜쥔 여자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정서연은 아버지가 폭

력을 휘두르는 집을 떠나 안정된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인물이다.

드라마는 ‘화랑’ ‘오 마이 금비’ ‘장영실’ 등을 연출한 김영조 PD와 ‘불야성’ ‘유혹’ ‘개와 늑대의 시간’ ‘닥터 진’ 등 대본을 집필한 한지훈 작가가 의기투합하는 작품이다.

‘99억의 여자’는 우연히 현찰 99억원을 움켜쥔 여자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정서연은 아버지가 폭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웰컴2라이프(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00 우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MBC 1318 사랑의 열매 캠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토크 보험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우리말 겨루기(재)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 농구 <대한민국>양골라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고창건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큐멘터리 3일(재)	2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차명명탐사 2부작 차도삼국지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덕화TV2 덕화디방	55 웰컴2라이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1~2부
9	00 KBS 뉴스 9			
10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0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리틀 포레스트
11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재)	10 지식채널지프로젝트 베짱이	05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KBS 뉴스 40 KBS 결박 다큐멘터리(재)	0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00 100분 토론	4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그림을 그려요(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07:00 로보카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15 꼬마버스 타요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45 물랑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07:45 페파 피그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00 덩동댕 유치원	15:10 로보카 폴리(재)	<낮선 매력 코카서스 시간이 머무는 곳 아제르바이잔>
08:30 띠띠뽀 띠띠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55 출동! 슈퍼웬스(재)	<그 여름의 끝에 섬 2부>
09:00 출동! 슈퍼웬스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즈	16:25 마사와 곰(재)	22:45 건축탐구 - 집
10:00 고양이를 부탁해	16:40 덩동댕 유치원(재)	23:5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p> <p>36년생 필요하면 소급해서 살펴 볼 일이다. 48년생 공리를 잘 하여서 대처하지 않으면 붕패하게 되어 있다. 60년생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72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적기에 쓸 수 있다. 84년생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14, 39</p>	<p>午</p> <p>42년생 길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환경이다. 54년생 얻는 바가 많아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66년생 바람직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78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 90년생 누적된 것을 해소하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1, 54</p>
<p>丑</p> <p>37년생 함께 하는 것이 길하다. 49년생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61년생 시종일관하여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73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정세의 변화가 급격하여 갈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5, 29</p>	<p>未</p> <p>43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55년생 외부적 요건에 구애받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67년생 크게 감동 받게 될 것이다. 79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 지속 가능한 것이다. 91년생 급변으로 인한 충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3, 75</p>
<p>寅</p> <p>38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50년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 하자. 62년생 너무 깊이 개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74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86년생 인내에 따른 보람을 느낀다. 행운의 숫자 : 19, 36</p>	<p>申</p> <p>44년생 길사주 연결되며 발전 된 양상을 띤다. 56년생 친사가 황금과 같으니 시간을 아껴 쓰자. 68년생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망실이 없을 것이다. 80년생 실제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잘 하자. 92년생 직접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성취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02</p>
<p>卯</p> <p>39년생 일방으로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길목에 이른다. 51년생 벌어진 틈을 메우지 않으면 이탈 될 수밖에 없다. 63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75년생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87년생 가치를 인식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2, 03</p>	<p>酉</p> <p>45년생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57년생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 해보자. 69년생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81년생 제3의 요소가 생기면서 변수로 작용한다. 93년생 길상이 깨끗하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 33, 16</p>
<p>辰</p> <p>40년생 허점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해 줘야 한다. 52년생 중일 동분서주할 뿐 실익이 약하다. 64년생 논쟁할 사이에 현혹 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반드시 준비 하여야 만 국면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 88년생 궁극에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행운의 숫자 : 07, 46</p>	<p>戌</p> <p>34년생 계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6년생 철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58년생 역풍을 안고 있지만 머지않아 반전 되리라. 70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82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8, 59</p>
<p>巳</p> <p>41년생 한 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53년생 불합리한 점을 방치하지 말라. 65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거울이리라. 77년생 진중하게 장고하는 것이 백 번 낫다. 89년생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범연 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9, 15</p>	<p>亥</p> <p>35년생 징조가 보이거든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해야 한다. 47년생 지금 완박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59년생 점점 복잡한 단계로 접어든다. 71년생 매우 희귀하니 소중한 여겨야겠다. 83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8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